

『사진과 함께 보는 노동자역사 알기』

노동자역사 한내 엮음, 한내, 2015

문 찬 일*

노동.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뜻한다. 근로. 부지런히 일함을 뜻한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조국근대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 사람인 ‘근로자’로 불려왔다.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의 쟁취와 경찰의 유혈탄압에 저항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는 전세계적 행사인 메이데이(May-day)도 불행하게 여전히 한국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다.

우리 역사에서 노동자는 주는 대로 임금을 받고 부지런히 일만 하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주체였음을 고찰하는 책이 발간되었다. 『사진과 함께 보는 노동자역사 알기』(이하, 『알기』)가 바로 그것이다. 노동자 자신의 과거 투쟁을 기억하는 ‘기억과의 전쟁’을 위해 노동자 자기 역사쓰기 운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역사 한내’(이하, ‘한내’)에서 엮었다. 한국의 노동운동사가 타자에 의해 기록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아키비스트가 되고 역사학자가 되고자 한 것이다.

이 책은 우리 근현대사의 시대 구분을 지배 권력의 교체나 정치 변동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기록연구소.

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노동운동의 큰 흐름을 중심으로 시대를 나누었다. 노동자 자기 역사쓰기에 맞게 역사는 노동자 민중의 움직임에 대한 지배구조의 대응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건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노동운동의 사건들을 사진과 함께 기술하여 알기 쉽고 흥미를 유도하였다.

이 책의 구성은 크게 5장으로 나눌 수 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1부 민족해방과 새나라 건설을 향한 노동자 민중의 희망과 좌절, 2부 억압과 반격, 3부 노동자의 진군, 4부 신자유주의에 맞선 저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장은 노동운동 관련 포스터, 문화예술 활동 사진, 노동자역사 연표 등으로 구성되어 1부부터 4부까지의 내용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진다.

1부 민족해방과 새나라 건설을 향한 노동자 민중의 희망과 좌절에서는 1894년 갑오농민전쟁부터 1960년대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까지의 시기가 서술되어 있다. 조선의 봉건체제가 붕괴하고 외세에 의해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 편입되면서 개항장을 중심으로 근대적인 임금노동자로서 짐을 싣고 내리는 부두노동자가 출현하였다. 개항 이후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강제 병합되면서 사회·경제적 수탈이 시작되자 우리 민중은 민족해방운동을 격렬히 전개하였다. 이런 현실 속에서 노동자들은 1923년 최초의 노동절 기념대회, 1924년 노동자 농민의 전국적 통일 조직인 조선노동총동맹 결성, 1925년 조선공산당 창당, 1929년 원산 총파업을 비롯한 파업의 확대, 1930년대 혁명적 노동조합운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일제와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인 민족해방운동의 주체였음을 밝히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을 맞이하자 우리 민족은 통일된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국제 냉전체제에 편입되어 1950년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한반

도의 분단은 공고화되었다. 이 시기 노동자들은 1945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를 조직하고 일제의 공장파괴를 막고 공산품의 생산을 지속하기 위해 자주관리운동을 전개하였다. 한반도의 공산화를 경계한 미군정은 친일 경찰과 관료를 앞세워 노동운동을 탄압하였고 이에 맞서 1946년 ‘9월 총파업’과 ‘10월 인민항쟁’ 등으로 저항하였다. 그러나 반공을 국시로 삼은 이승만 독재정권과 조국근대화를 기치로 내건 박정희 독재정권 하에서 노동과 인권은 목살되었다고 보았다.

2부 억압과 반격에서는 1971년 전태일의 분신에서부터 1987년 6월 항쟁까지 다루고 있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전태일의 분신은 조국근대화라는 미명 하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폭로하며 한국 노동운동의 전환점이 되었다. 1971년 철거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광주대단지 사건, 한진상사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투쟁을 시작으로, 1972년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 탄압에도 불구하고 한국모방(1972년), 반도상사(1974년), 동일방직(1978년) 노동자들의 임금 투쟁과 민주노조 운동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특히 1979년 YH무역 여성노동자들의 신민당사 점거 투쟁과 야당 김영삼 총재의 국회 제명은 부산·마산 지역의 거대한 항쟁을 불러일으켜, 박정희의 암살이라는 10·26 사건의 단초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는 1980년 5월 18일 민주화를 요구한 광주시민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5·18 광주민중항쟁으로 한국사회 성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서 머물지 않고 변혁운동으로 변화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청계피복노동자들의 민주노조 투쟁(1981년), 월풍모방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사수 투쟁(1982년), 1985년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농성(1985년), 구로지역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인 구로동맹파업(1985년), 인천5·3투쟁(1986년)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1987년 6월 항쟁으로 귀결되었다고 말한다.

3부 노동자의 진군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1995년 민주노총 건설까지의 시기다. 6월항쟁과 직선제 개헌 쟁취로 고양된 노동자들은 개별사업장을 넘어 지역 및 전국적인 연대 투쟁을 강화하여 1987년 7월부터 9월까지 하루 평균 30건이 넘는 3,337건의 쟁의를 일으켰다. 1990년 노태우 정권의 탄압에도 철도 기관사 파업(1988년), 노동법 개정 투쟁과 5만여 명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1988년), 100회 세계노동절 기념대회(1989년), 전교조의 결성(1989년) 등의 흐름은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조직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창립과 34만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5월 전국총파업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1993년 3당 합당과 반호남연합에 기반으로 출범한 김영삼 정권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요구하는 '노동법 개정'을 수용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섭권을 위임받지 않은 한국노총이 경총과 임금협상안을 합의하자 한국노총 탈퇴투쟁으로 전개되었으며, 1995년 11월 11일 15개 산업별 조직, 861개 노조, 41만 명의 노동자들을 망라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탄생하였다고 설명한다.

4부 신자유주의에 맞선 저항은 1996년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부터 2011년 홍익대 청소, 경비노동자 투쟁까지 다루고 있다. 1997년 10월 한국사회는 IMF관리 체제로 전락하자, 1998년 새로 선출된 김대중 정권은 외자유치, 자본자유화와 민영화, 노동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에 의한 정리해고, 대량실업 문제가 발생하였다. 2003년에 출범한 노무현 정권의 '선진 노사관계 로드맵'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제한, 노조 파업권 제한, 고용유연성 강화하는 내용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2008년 등장한 이명박 정권은 부자 감세, 복지 삭감 정책과 함께 미국발 금융위기와 경제정책의 실책으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비정규직이 확산되었으며, 빈부격차가 더 확대되는 등 노동자 민중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보았다.

1996년 12월 26일 새벽6시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개악 날치기 통과에 대응하여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포하고 75일간 528개 노조, 40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참여하자 대통령의 사과와 노동법의 재개정을 이루어내는 성과를 가져왔다.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맞서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맞선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 부도난 회사의 인수에 따른 고용승계를 위한 투쟁,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 공기업 민영화 반대 투쟁,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합 단결권 쟁취 투쟁, 주40시간 및 주5일 노동시간 쟁취 투쟁, 비정규직 및 파견법 철폐 투쟁, 공무원노조 결성, 산업재해 인정 투쟁, 이주노동자 합법화 투쟁, 한미FTA 반대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2000년 민주노동당의 창당과 국회의원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구속과 해고, 손배가압류로 이어지는 노동조합 탄압에 저항했던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이용석 열사,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 세원테크 이현중 및 이해남 열사의 산화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에게 역사가와 역사를 기록하는 아키비스트(archivist)들은 한낱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없는 사람들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부심만으로 켜켜이 쌓여 나가는 세월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지금 여기서 그때그때 해나가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흘러간 강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기록물의 누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알기』에 대한 노동당 기관지 양술규 편집위원의 평처럼 『알기』는 독자로 하여금 기록의 중요성을 새삼 재확인시켜준다.

하지만 이 책의 서문에 따르면 사진 기록의 입수와 선별이 어려웠다고 한다. 사진을 구하는 일부터 난관이어서 신문기사로 대신하거나 선명하지 않은 사진을 활용하였다고 한다. 조직이 사라진 경우에는 개인을 추적해서 구하거나 신문사에서 구매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편,

참고할 수 있는 투쟁 백서라도 있는 사건들은 기술의 어려움은 없었으나, 투쟁은 열심히 했지만 기록을 남기지 않은 투쟁의 경우는 매우 막막하였다고 토로한다.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는 사람이 아닌 밥상을 잘 차리는 아키비스트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노동자역사 ‘한내’는 우리나라에 몇 없는 민간 아카이브다. 민간 아카이브에 대한 요구와 역할에 대한 논의는 기록학계에서도 활발하지만 그에 비해 실제적인 성과가 부족한 것은 아쉬운 현실이다. 그렇기에 ‘한내’는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기록학계에게도 소중한 공간이다. 그런 ‘한내’에서 펴낸 『알기』의 판매가는 65,000원이다.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진, 내용, 가치, 희소성, 하다못해 종이질에서 분량까지 감안한다면 그 값어치는 충분하다. 『알기』를 통해서 사진기록으로 본 노동자 관점의 한국 근현대사는 무엇인지 많은 아키비스트들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다.

중국의 문학가 노신(魯迅)은 “희망은 원래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다. 이는 마치 땅 위의 길과 같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걷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길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에게 땅 위의 희망이란 길을 만들어준 전태일을 비롯한 수많은 열사들의 희생과 투쟁에 애도와 경의를 표하며 글을 마친다.